

비판이론으로서의 합리적 선택¹⁾ - 조지프 히스

번역자: 서요련

서지정보

Joseph Heath(1996), "Rational Choice as Critical Theory", *Philosophy and Social Criticism*, Vol. 22, No.5, pp. 43-62.

※ 일러두기

1. 본문에서 이탤릭체로 강조한 표현은 ‘굵게’ 표시하였다.
2. 본문에서 ‘역주’를 표시하지 않은 각주는 모두 저자의 각주이다.

43

요약

하버마스는 서구 사회의 수많은 고질적인 사회경제적 문제가 의사소통적 합리성보다 도구적 합리성이 두드러진다는 의미에서 “일면적인” 문화적 합리화 과정의 징후 혹은 산물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하버마스는 생활세계의 병리현상을 상당히 종합적인 유형론으로 제시한 반면, 일면적인 문화적 합리화의 문제를 구체화하는 데는 다소 미진하였으며, 그 문제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의 “중범위” 분석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 논문은 정확히 이러한 과제 수행에 있어 하버마스의 전반적인 틀을 따르면서도 합리적 선택이론을 활용할 수 있음을 논한다. 이러한 분석 과정에서 합리적 선택이론을 포괄적 행위이론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진단 도구로 활용할 것이다. 즉 합리적 선택이론은 이론가로 하여금 생활세계의 광범위한 도구화로 인해 발생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적 상호작용 패턴을 규명하게 해주는 진단 도구로 제시된다.

핵심 키워드: 비판이론, 하버마스, 도구적 합리성, 시장실패, 합리적 선택이론

하버마스는 서구 사회의 수많은 고질적인 사회경제적 문제가 의사소통적 합리성보다 인지적-도구적 합리성이 두드러진다는 의미에서 “일면적인” 문화적 합리화 과정의 징후 혹은 산물이라고 주장해왔다. (44) 비판적 검토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전근대 사회의 제도와 규범을 유지해주던 신화적·종교적 세계관이 붕괴하면서, 사회통합의 부담은 의사소통적으로 성취된 의견 일치라는 “위태로운” 메커니즘으로 전이된다.²⁾

-
- 1) 논문에서 밝힌 많은 견해를 교정하도록 설득해준 제임스 존슨과 아주 상세하고 유용한 논평을 해준 토마스 매카시에게 감사를 표한다. 둘은 1994년 미드웨스트 비판이론 회의(Midwest Critical Theory Roundtable)의 참석자로서 이 논문의 초안을 토론해주었다. 이 논문을 쓰는 동안 캐나다 사회과학·인문학 연구소의 재정 지원을 받았다.
 - 2) Jürgen Habermas(1984, 1987),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2 vols*, trans. Thomas McCarthy, Boston, MA: Beacon Press, Vol. 2, p. 181. 이후 인용은 이 문헌의 쪽수이다.

44

공론장이 충분히 합리화되지 않아서 그러한 의견 일치를 성취하지 못하는 것은, 의사소통적으로 통합된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을 도구적 행위가 적절하게 구조화된 하부체계로 변형함으로써 목표 달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끈질긴 경향을 초래한다. 이는 행위자에게 의사소통적 상호작용의 까다로운 요건에서 오는 부담을 경감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행위자들이 인지적으로도 동기상으로도 덜 부담스러운 도구적 지향(*instrumental orientation*)을 취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하부체계 내의 행위는 규범에 의해 직접 규제되지는 않으므로, 하부체계 내의 상호작용이 초래한 결과가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일단 사회가 (이미 성취된 의사소통적 합리화 수준을 생각할 때) 하부체계 없이는 조정과제를 수행할 수 없어 하부체계에 의존하게 되면, 하부체계가 통제 불능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비판적 사회이론의 한 가지 과제는 이처럼 도구적 합리성에 과도하게 의존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진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버마스는 생활세계의 병리현상을 상당히 종합적인 유형론으로 제시한 반면, 일면적인 문화적 합리화의 문제를 구체화하는 데는 다소 미진하였으며, 그 문제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의 “중범위”(middle-range) 분석도 제공하지 않았다. 나는 정확히 이러한 과제 수행에 있어 하버마스의 전반적인 틀을 따르면서도 합리적 선택이론을 활용할 수 있음을 논하고자 한다. 아래에서 (i) 하버마스가 전반적인 분석 틀에서 도구적 합리성에 할당하는 위상을 규명한 다음, (ii) 하버마스가 주장한 “생활세계의 식민지화” 테제의 지위를 검토한다. 이어서 (iii) 일부 소박한 기능주의를 제거하기 위해 하버마스의 분석을 수정한 후, (iv) 도구화로 발생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진단하는 과제에 합리적 선택이론을 이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v) 이러한 유형의 비판이론이 합리적 선택 자유주의, 분석 마르크스주의, “비판적 해석학”(critical hermeneutics)과 어떻게 다른지를 해명한다.

I

하버마스와 초기 프랑크푸르트학파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학설상의(*doctrinal*) 차이는 하버마스가 도구적 합리성을 “악마화”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점이다(2: 333). 하버마스의 관점에서 도구적 합리성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며, 도구적으로 사고하는 다수 행위자가 모일 때 일어나는 상호작용이 (일부는 의도적이고 일부는 그렇지 않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 잘못된 것이다. (45)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는 헤겔적 이성 개념에 영향을 받아 체계 합리성과 행위 합리성의 구분을 간과하였으며, 그 결과 이와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상호작용 체계의 속성이 아니라 도구적 행위 자체의 속성으로 생각하였다. 이 점은 오랫동안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괴롭힌 결합의 오류의 반전된 형태이기도 하다.³⁾

45

하버마스는 사회적 행위 유형(*types of social action*)과 사회질서 형식(*forms of social order*)을 예리하게 구별함으로써 초기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을 훨씬 정밀하게 재정식화할 수 있다.⁴⁾ 행위 수준에서 하버마스는 두 가지 유형의 실천적 합리성을 구별한다. 행위자가 취하는 지향에 따르면, 실천적으로 숙고할 때 도구적 고려사항이나 의사소통적 고려사항 중 하나에

3) Russel Hardin(1982), *Collective Action*,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를 보라.

4) 행위-질서 구별에 관한 폭넓은 토론을 위해서는 Jeffrey Alexander(1982, 1983), *Theoretical Logic in Sociology*, 4 vols, Berkely: University California Press를 보라.

우위를 둘 수 있다.⁵⁾ 이와 같이 행위이론 수준에서 도구적 합리성을 정의할 경우, 하버마스는 합리적 행위의 도구적 관념의 세부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표준적인 합리적 선택이론을 따를 수 있게 된다.⁶⁾ 덕분에 하버마스는 『의사소통행위이론』에서 그랬듯이 곧바로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적정한 성격을 명료화하는 작업에 착수할 수 있었다.

사회질서 수준에서 하버마스는 사회적 행위 통합의 두 가지 상이한 메커니즘을 구별한다. 의사소통적으로 사고하는 행위자가 공유된 규범과 기대를 통해 행위 계획을 직접 조정할 수 있는 반면, 도구적으로 사고하는 행위자는 선호하는 결과의 실현만을 고려할 뿐이다. 이 점은 도구적 행위가 행위 지향의 조화를 통해서만 통합될 수 없고, 따라서 각 개인의 선택 문제를 구조화하는 환경 매개 변수를 변경하는 비규범적 조절 메커니즘을 통해서만 통합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하버마스는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과 **체계통합(system integration)**의 구별을 제안한다. “전자는 행위지향에서 시작하는데, 후자는 그것을 통과해서 영향을 미친다.”(2: 15 0)⁷⁾ 하버마스는 사회통합이 일차적인 조직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영역을 **생활세계(lifeworld)**라 부르고, 체계통합이 일차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영역을 **체계(system)**라고 부른다.

사람들이 도구적 이유로 범하는 나쁜 행위가 아니라 도구적으로 합리적인 행위자들이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관심을 둔 결과, 하버마스는 도구적 합리성 비판을 이른바 (다소간 오도하는) “기능주의적 이성” 비판으로 보충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다. 이 맥락에서 기능주의적 이성은 체계통합된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을 지칭하도록 의도된 표현이다.

46

하버마스의 관점에서 이 점이 시사하는 바는 근대 사회 비판가는 그저 은폐되거나 알려지지 않은 도구적 행위 유형을 포착하기만 해서는 공헌을 할 수 없고, 나아가 어떤 방식으로 그러한 상호작용 패턴의 결과가 문제가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설정한다면 “생활세계”의 조직 패턴 대신 “체계”를 이용해도 잘못이 아닌 경우가 자주 있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예를 들어 익숙한 할당 문제를 해결하는 다음 두 가지 접근을 생각해 보자. 노스웨스턴 대학교 인문대학의 수강신청은 학생들을 알파벳 순으로 줄 세우는 방식의

5) 하버마스가 의사소통적 행위의 의미를 “행위조정 양상”, 즉 행위자들이 언어적으로 매개된 교환을 통해 행위지향을 일치시키려 할 때 의사소통적으로 행위한다는 개념으로 설명한 것은 혼동의 여지가 상당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정의를 채택하면 내가 기술한 행위-질서 구별을 가려지며, 의사소통적 행위 개념에 쓸모없는 기능주의가 개입하게 된다. 그러나 누구도 도구적 행위가 “조정 양상”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으므로 도구적 행위와 체계통합 간에 행위-질서 구별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는 순수한 행위 수준의 의사소통적 행위 개념을 도구적 행위와 대비되는 것으로 간단히 정의할 수 있고, 질서 수준의 사회통합 개념과도 구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당연히 파슨스가 그랬듯이 하버마스도 사회통합이 의사소통적 상호작용의 균형상대라고 주장하는 길은 항상 열려 있다. 요점은 이러한 경로가 단순한 규정만으로는 확립될 수 없다는 점이다.

6) 어떤 이유에서인지 수많은 논평가들은 하버마스가 “합리적 선택”, 그러니까 선호 기반 결정과 게임이론을 채택하여 도구적 합리성을 해명하려고 한 점을 주의 깊게 보지 않았다. 예를 들어 Maeve Cooke(1994), *Language and Reason*, Cambridge, MA: MIT Press, pp. 20-22. 이는 놀라운 일인데, 하버마스가 『의사소통행위이론』에서 명시적으로 존 폰 노이만(John von Neumann)과 오스카 모르겐슈테른(Oskar Morgenstern)을 따를 뿐만 아니라 게임이론가들이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기술적 의미로 “전략적 행위”라는 용어를 채택하기 때문이다.

7) 이 대목에서 하버마스는 다음 문헌에서 가져온 용어를 수정하고 있다. David Lockwood, “Social Integration and System Integration”, eds. G. Zollschan & W. Hirsch(1964), *Explorations in Social Change*, Boston, MA: Houghton Mifflin.

8) 역주: *TkH* 2, p. 241.

로 이루어진다. 전형적인 “생활세계”의 사회 조직 패턴이다. 이러한 할당 방식은 규범이 직접 규제하는 것으로, 성공 여부는 그저 규칙 준수 여부에 달려 있다. 반면 경영대학 학생들은 행정적으로 할당된 초기 통화 스톡(initial stock of currency)을 사용하여 경쟁 경매에 수업을 입찰한다. 전형적인 “체계”의 사회 조직 패턴이다. 수강신청 성공 여부는 각 학생이 도구적 지향을 취하여 전략적으로 정교한 입찰 전략을 수립하는지에 달려 있다.

다소 의심스러운 교육 목적을 잠깐 무시하고 보면 이 문제에 “체계적” 해법을 쓰는 것이 내재적으로 그릇된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사실 이 해법은 훨씬 더 만족스러운 자원 할당을 가져온다. 줄 세우기는 비효율적인 분배 방식으로 악명이 높다. 응분이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각 개인이 줄에서 낭비하는 시간에 따라 보상을 받는 데는 쓸데없이 참으로 효과적이지 않다. 게다가 줄 세우기는 본질적으로 전근대적이다. “순수한 의사소통적 행위” 해법은 모든 학생을 한곳에 모으고 누가 수업을 들을지 협력적으로 결정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다. 만약 광범위한 사회비판이 줄 세우기 규범의 전통적 권위를 약화하고, 갑자기 수강신청이 의사소통적으로 성취된 합의의 “위태로운” 메커니즘으로 전이될 경우, 경쟁 경매를 통한 “체계” 해법은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필수불가결해 보이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묻고 싶은 것이 있을 테다. 무엇이 문제인가? 도구적 행위에 따른 상호작용이 인간의 상호작용 일반보다 안 좋게 작동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이론적 수준에서 이 물음에 답하려면 도구적 행위의 모델이 필요하다. 이러한 모델을 도입하면 두 가지 이점이 있다. (47) 이 모델 덕분에 우리는 도구적 상호작용에 의해 체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유형을 구체화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모델은 우리에게 조직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전반적 자원으로서 기능하는 도구적 합리성의 지위에 이익을 제기할 수 있도록 원칙에 입각한 이유(principled reasons)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인 사회병리현상의 인과관계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문제되는 상호작용 패턴의 구체적 특성을 제공한다.

47

도구적 합리성의 모델은 매우 다양한데, 가장 정교한 모델은 선호 기반 결정 모델과 (내가 합리적 선택이론이라고 부른) 게임이론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든 간에, 도구적으로 합리적인 행위는 안정적인 사회질서의 토대로 기능할 수 없다는 점이 전형적인 문제로 나타난다. 이 점을 보여주는 결정적 논거는 다소 복잡하다. 실제로 하버마스는 탈콧 파슨스가 적절하게 입증했다고 간주하고 더 자세히 다루지는 않는다.⁹⁾ 이 기본 발상에 따르면 도구적으로 합리적인 행위자는 자신이나 타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신뢰할 수 있는 일련의 규칙을 만들 어낼 수 없으며, 따라서 극적으로 제한된 조직 역량에 “갇혀버린다”(stuck). 외부의 도움 없다면 도구적으로 합리적인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체계는 자연상태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조직 목표를 도구적으로 합리적인 행위 체계로 전환하려면 단지 행위자들이 규범적 통제를 폐지하기만 해서는 충분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도구적 합리성의 잠재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전달하고 규제하는 데 특화된 일련의 제도를 고안(design a set of institutions)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오늘날 구 소련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시장은 극도로 정교한 법적 구성물이지만, 개인의 이익 추구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제약을 무언가로

9) Talcott Parsons(1937), *The Structure of Social Action*, 2 vols, Glencoe IL: Free Press를 보라. 하버마스가 파슨스에 표한 동의는, TCA 2, pp. 205-213; 또한 Jürgen Habermas, “Actions, Speech Acts, Linguistically Mediated Interactions and the Lifeworld”, eds. G. Fløistad(1994), *Philosophical Problems Today*, Vol. 1, Dordrecht: Kluwer Academic, p. 63.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할 경우 혼돈, 무질서 혹은 **아노미(anomie)**만 유발할 뿐이다.

하버마스는 가장 일반적인 수준에서 특히 화폐·권력 같은 **조절매체(steering media)**를 도입하여 도구적 행위 체계에 제도적 제약을 부과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조절매체에 내포된 발상은, 계량화하기 쉽다는 점에서 행위자들이 결정을 내릴 때 효용(utility) 대신 조절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⁰⁾ 그렇다면 제도적 제약은 조절매체의 측면에서 표현될 수 있으며, 이는 “게임의 규칙”으로 간주되는 것을 명료화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제공한다. 정부는 이 규칙을 끊임없이 미세 조정하여 승리 전략을 바꿀 수 있으며, 그리하여 오직 승리에만 관심을 두는 참가자들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체계통합은 조절매체의 형식으로 표현된 제도적 제약을 통해 성취된다.

48

II

도구적 합리성에 의존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진단하는 하버마스의 기본 발상은 상당히 간단하다. 일단 사회가 핵심적인 조직 문제, 가령 생산, 분배, 목표설정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체계통합에 의존하게 되면, 체계는 내부 동학을 더욱 심화하여 사회통합된 상호작용 영역에까지 뻗어나간다. 이 분석은 도구화, 부속화(mediatization), 식민지화라는 세 가지 핵심 개념을 포함한다. **도구화**는 행위자가 전통적으로 의사소통적 행위를 수행했던 영역이 도구적 행위를 수행하는 영역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말한다. **부속화**는 예전에는 언어로 조정된 상호작용이 조절매체로 조정되는 상호작용으로 전환될 때 발생한다(2: 183). 둘의 차이는 미묘하다. 도구화는 행위 수준의 개념으로, 행위자가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방법을 다룬다. 부속화는 질서 수준 개념으로, 다수 행위자의 행위를 조정하는 방법을 다룬다. 하버마스는 도구화와 부속화를 상호보완적 현상으로 이해한다.

체계통합과 사회통합의 ... 분리는 상호작용의 수준에서 성공지향적 행위와 이해지향적 행위 사이의 분화만을 전제하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 [언어나 매체와 같은] 행위조정 메커니즘 사이의 분화도 전제한다.(2: 180)¹¹⁾

물론 모든 사회적 행위 영역이 도구화되거나 부속화될 수는 없다. 순수하게 도구적 맥락에서는 사회질서가 형성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체계를 규율하고 제약하는 제도를 유지하려면 특정한 상호작용 유형만큼은 반드시 규범에 의해 규제되는, 즉 사회통합된 것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하버마스는 사회통합의 전제조건을 문화, 사회, 인격으로 분석하는 고전적인 파슨스적 도식을 채용한다.¹²⁾ 이 관점에서 사회질서는 사회화와 사회적 통제가 결합하여 유지된다. 따라서 생활세계의 **식민지화**는 이 두 가지 메커니즘의 작동에 필수적인 행위 영역이 도구적

10) 이 점은 하버마스가 좇지는 않은 흥미로운 탐구 경로를 시사한다. 행위자가 필요한 정보량과 계산력을 감안할 때 도구적 추론의 요구 수준은 매우 높을 수 있다. 가령 전략적 상호작용은 각 참가자의 선호 순서가 모든 참가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한다. 이 조건은 대개 충족되지 않는다. 그러나 선호가 화폐 매체를 사용한 수요나 권력 매체를 사용한 투표로 번역될 때는 공적이고 측정 가능해진다. 또한 매체를 통해 가령 구속력 있는 결정을 보장함으로써 환경 내의 특정한 전략적 변수를 매개변수로 고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다양한 선택 문제를 단순화한다.

11) 역주: 한국어 번역본을 참고하되 문맥에 맞게 고쳐 옮겼다. *TkH 2*, p. 284.

12) 다음을 보라. eds. Talcott Parsons & Edward A. Shils(1951),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New York: Harper & Row; Talcott Parsons(1951), *The Social System*, New York: Free Press.

행위로 전환될 때 발생한다(2: 196).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다면 사회질서 재생산에 필수적인 상호작용 영역을 부속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문제는 체계의 원활한 작동이 지속되려면 매체로 조절되는 상호작용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자주 있다는 것이다. (49) 이를테면 기업은 비용을 외부화하고자 하는데, 흔히 금전적인 용어로 쉽게 계산되지 않는 방식 가령 오염, 구조조정, 공공자원의 부당 이용 등으로 그렇게 한다.

49

정부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막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실시해야만 한다. 이러한 규제는 기업의 인센티브를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비용에 넣도록”(costing) 해야 한다. 그러나 도구적으로 합리적인 행위자가 끊임없이 규칙을 우회하려는 인센티브를 갖고 있음을 감안하면, 규제의 범위와 밀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따라서 매체로 조절되는 상호작용도 계속해서 팽창할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도구화와 부속화가 말하자면 무해하기는 해도, 체계통합의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역학을 내포하고 있다.¹³⁾ 체계통합의 영역이 생활세계의 유지와 재생산을 방해하는 지점까지 확장될 때, 부속화는 식민지화가 되며(2: 318) 사회병리현상이 발생한다. 하버마스가 비판이론의 진단 과제로 생각한 것이 바로 이 병리현상이다.

III

더 나아가기 전에 한 가지 의구심이 든다. 현재의 구도로 보면 하버마스의 분석은 거부 가능한 유형의 기능주의를 전제한다. 통합을 마치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의 자동적(automatic) 결과인 것처럼 생각한 결과, 하버마스는 도구화와 부속화를 단순하게 동일시하고 있다. 따라서 하버마스는 사회통합과 체계통합을 철저한 이분법으로 제시하고 각각 의사소통적 행위와 도구적 행위에 직접 대응되는 것으로 본다. 문제는 행위가 의사소통적이거나 도구적일 수 있는 반면, 상호작용이 반드시 통합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통합되지 않고 단지 아노미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가령 노스웨스턴 대의 수강신청 절차가 반드시 줄 세우기나 경쟁 경매 중 하나로 이루어질 필연적 이유는 없다. 줄 세우기 규범이 깨지면 학생들은 그냥 수강신청 부스로 마구잡이로 몰려가 도구적 무한 경쟁(an instrumental free-for-all)을 할 수도 있다. 이는 의사소통적 행위가 도구적 행위로 전환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도구화가 개념적 우선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전환 과정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곧바로 아노미 상태로 이어진다.¹⁴⁾ 부속화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잠재적 해법이기는 하나, 실행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비판이 기능주의적 설명 전반에 대한 반론을 전제하거나 함축하지는 않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나는 (생활세계 관점과 체계 관점에 대응하는) 의도주의적 설명과 기능주의적 설명이 상호보완적 분석 방법이라는 하버마스의 주장에 반대하지 않는다. (50) 내 우려는 도구적 상호작용이 항상 조절매체를 통해 통합된다는 하버마스의 암묵적 주장과 관계가 있다.

13) 그러한 역학의 기본 발상은 다음에서 가져왔다. Karl Polanyi(1944), *The Great Transformation*, Boston, MA: Beacon Press.

14) 파슨스가 말한 대로 이해한 아노미는 “상호작용 과정에서 구조화된 상보성의 부재”, *The Social System*, p. 39를 보라.

내가 반대하는 것은 하버마스가 이러한 통합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을 **특정화하지 않았다**는 데 있지 않고, 그러한 메커니즘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 데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주장은 그 자체로 틀렸기 때문이다. 기능주의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그것이 참일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그럴듯하게 뒷받침하는 유일한 근거가, (니클라스 루만이나 후기 파슨스의 저작에서 찾아볼 수 있는)¹⁵⁾ 통합이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의 본질적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광의의 유기체론적 입장에 뿌리를 두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정할 경우 전체 분석에 약간의 변화가 생긴다. 무엇보다도 **부속화**가 생활세계 재생산의 핵심 영역을 침해할 때 식민지화로 이어진다는 점은 부정확해진다. 부속화가 체계 확장역학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식민지화로 이어지는 것은 **도구화**이다. 사회질서의 재생산을 막아버리는 것은 도구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서 하버마스의 정식화는 자주 오해를 유발한다. 아래 인용문을 보자.

생활세계의 상징적 재생산이 병리적 부작용 없이는 체계논리에 따른 통합으로 이전될 수 없다는 말이 옳다고 해보자. 그리고 바로 이런 경향이 성공적인 복지국가적 조정의 불가피한 부대효과라고 해보자. 그렇다면 문화적 재생산, 사회통합, 그리고 사회화의 영역에서, 앞서 언급된 조건 아래서는, 형식적으로 조직된 행위영역들로 동화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¹⁶⁾

이는 마치 행위 유형보다는 **통합 형식**이 생활세계의 재생산을 방해한다는 말처럼 들린다. 사실 이러한 행위가 조직된 것이든 그렇지 않든, 생활세계의 상징적 재생산을 도구적 행위의 토대로 이전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는 부속화가 도구화를 확대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한에서 단지 간접적으로만 식민지화에 포함된다.¹⁷⁾

두 번째로 초래되는 변화는 좀 더 중요하다. 하버마스는 도구적 상호작용이 자동적으로 매체를 통해 통합되리라고 가정한 결과, 도구화의 영향을 지나치게 장밋빛으로 묘사하게 된다. 하버마스는 부속화가 식민지화를 촉발하는 지점으로 확장될 경우에만 아노미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2: 385). 그렇지만 의심스러운 기능주의적 가정을 제거한다면 문제를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 아노미는 도구화의 직접적 결과로도 일어날 수 있다. 식민지화가 행위자들의 매체를 통한 식민지화 교정 능력을 객관적으로 제한하기도 하겠으나, 애초에 매체 해법이 실행된다는 보장이 없다. (51) 따라서 근대 사회의 진짜 문제는 “체계통합과 사회통합의 분리”가 아니라 의사소통적 행위에서 도구적 행위로의 전환이다.

15) 주목할 점은 하버마스 자신이 이런 유형의 기능주의를 비판하기는 해도, 그 근거로 생활세계의 상호작용 패턴이 보이는 독특한 특징을 무시한다는 점을 들지, 기능주의가 통합이 상호작용의 자동적 결과라고 가정한다는 점을 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비롭게 해석하여 하버마스의 주장이 단지 과도된 것이고, 하버마스는 도구적으로 합리적인 행위가 매체를 통해 자동으로 통합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이렇게 볼 경우에는 내가 여기서 윤곽을 그린 입장은 하버마스의 실제 입장을 그저 보다 상세하게 명료화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16) 역주: *TkH* 2, p. 548.

17) 앞서 말했듯이 조절매체만으로 도구화 확대 역학을 공급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그리 명백하지 않다. 자기이식은 “사회의 부식”(rust of societies)이라는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관찰은 도구적 행위가 많은 점에서 자기증식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그 까닭은 협력 관계에 깔려 있는 신뢰가 형성되려면 시간이 필요하지만, 단 하나의 변절만으로도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협력 제도를 일방적으로 준수하면서 착취당한 행위자는 장래에 도구적 지향을 취할 개연성이 크다.

51

이 전환이 아노미를 유발하고 생활세계의 재생산을 허물어뜨린다. 도구적 상호작용이 체계 메커니즘을 통해 재통합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통합 여부가 중요한 유일한 경우는 통합 여부가 도구화 수준을 증가·감소·안정시키는 경향의 유무를 결정할 때뿐이다.

그러므로 조절매체의 효과를 분석하여 생활세계의 병리현상을 진단하려 하면 실수를 범하고 만다. 오히려 그러한 진단은 의사소통적 지향에 따른 상호작용이 도구적 지향에 따른 상호작용으로 전환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 결과 식민지화 테제는 훨씬 덜 중요해진다. 사실상 식민지화 테제는 체계통합의 범위에 **원칙적(in principle)** 제한을 가한다. 이는 예비적으로 구비하기에는 좋은 논거이지만, 도구화가 초래한 여러 문제들에 매체 요법도 잘 먹혀한다고 볼 이유가 생기고 나서야 비로소 절실해지는 논거이다. 또한 소박한 기능주의를 걷어내고 나면 이조차도 매우 불분명하다. 경제학자들이 비교적 간단한 오염 방지 문제를 두고 논쟁하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매체 해법의 실행은 흔히 심각한 실천적·개념적 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점에서 합리적 선택이론이 진단을 통한 비판 도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만약 도구화가 행위자가 도구적 지향을 채택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합리적 선택이론의 기본 공준(postulates)은 도구화의 영역에서 납득할 만할 것이다. 다시 말해 게임이론으로 도구적 상호작용을 모델화할 수 있을 것이다. 게임이론의 가장 흥미로운 측면 한 가지는, 그 모델에 따르면 도구적으로 합리적인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특유의 역직관적인** 결과를 자주 초래한다는 점에 있다. 특히 행위자들이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서로의 행위를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제 우리의 현실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패턴에서 게임이론 모델이 예측한 전형적인 조정 문제 및 조직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도구적 행위 지향에 과도하게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훌륭한 발견법상의 근거라 할 수 있다.

IV

(52) 이러한 방식으로 합리적 선택이론은 사회적 행위의 일반이론을 제공하는 대신에 도구화가 유발한 문제를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진단 도구로 기능한다.

52

합리적 선택 모델은 시험 가능한 사회과학적 가설의 형태를 취하는 구체적 비판이론을 고안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하버마스가 식민지화의 산물로 본 생활세계의 병리현상은 이러한 문제의 부분집합으로 존속한다. 그러나 또한 비판이론가는 합리적 선택의 틀을 통해 사회통합된 상호작용 영역이 체계 메커니즘에 따라 재통합되지 않고 도구화될 때 발생하는 문제를 규명할 수 있다. 나에게서는 여러 사례 중에서도 아래 세 가지 유형이 흥미롭다.

1. 집합행동의 문제

행위자들이 도구적 지향을 취할 때는 더 이상 서로에게 공동 이익이 되는 결과를 얻을 목적으로 행위한다고 가정할 수 없다.¹⁸⁾ 공동 이익이, 일련의 일치하는 개인적 이익으로 전환되지 않는 게임을 죄수의 딜레마 혹은 시장 실패라고 부른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자. 캘리포니아에

18) Mancur Olson(1965),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Hardin, *Collective Action*.

가뭇이 들었을 때 모든 사람이 잔디에 물을 준다면 저수지가 바닥날 것이다. 시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잔디에 물 주기를 삼가달라고 요청한다. 그러나 각 시민들 자기 잔디에 필요한 물이 무시해도 될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든 나는 물을 주는 게 낫다는 점을 깨닫는다. 다른 사람들이 물 주기를 삼갈 경우, 나는 그런 보존 노력에 “무임승차”(free ride)할 수 있다. 한편 다른 사람들이 물 주기를 삼가지 않을 경우, 어쨌든 저수지는 말라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만큼 물을 끌어다 쓰는 게 최상이다. 모두 이렇게 추론하기 때문에, 모두 다음 날이면 물이 바닥나는 사태에 처한다.

이 사례는 자멸적인 집합행동의 고전적 사례이자 구체적 유형이기도 하다. 이 구체적 유형은 도구적으로 합리적인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 특유한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불화”(feud)는 전통적 규범에 의해 규제되는 특정한 행위 체계의 특징이다.) 위 사례에서 상수도는 이른바 “집합재”(collective good)이다. 집합재는 모두에게 더 좋은 것이지만 전략적 균형이 아니어서 획득 불가능한 결과로 정의할 수 있다. 또 다른 집합재의 사례로는 깨끗한 환경, 고임금, 핵군축, 교육제도, 거시경제 인프라, 장기 저축, 자원 절약, 완전 고용 등이 있다.

만약 하버마스가 제안하듯이 생활세계가 도구화되는 경향이 있다면, 이는 전에는 없었던 집합행동의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의미한다. 미국의 총기 소유가 좋은 예이다. (53) 총기 소유 문제는 죄수의 딜레마의 고전적 사례이다.

53

이웃보다 중무장해서 안 좋을 건 없지만 모두가 총기를 소지한 사회는 누구도 소지하지 못한 사회보다 훨씬 나쁘다. 이처럼 기본적인 인센티브 구조가 항상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미국의 총기 소지 증가 현상의 원인을 도구적 지향을 취하는 시민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돌릴 수 있다. 다시 말해 전통적으로 총기 소지를 억제한 도덕적 지지가 침식되었다는 데 원인이 있다.

본래 행위자들이 집합행동의 문제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규범적 맥락이 무너지면, 집단 계획에 순응할 동기가 생기도록 일련의 공식적 제재를 필수적으로 확립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합리적 선택 분석을 활용하여 법제화를 해명하는 미시적 토대를 제시할 수 있다. 더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집합행동의 문제를 식별함으로써 전에는 설명하지 못한 사회변화 과정을 이해할 실마리를 얻을 수도 있다. 예컨대 활자 언론 직업 기준(professional standards)이 약화 현상이나 TV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하락 현상은 아마 어떤 특정한 문화적 변화 때문이라기보다는, [다수의] 도구적 선택들이 집합하여 발생한 자기강화 역학인 셈이다.

2. 입법 심의의 문제

민주적 의사결정의 사회 선택 모델에 따르면 행위자들이 도구적 합리성에 입각하여 자기가 선호하는 바에 투표할 때 매우 구체적인 입법상의 불안정성과 비합리성을 초래한다.¹⁹⁾ 가장 공통적인 문제는 “순환하는 다수”(cyclical majorities)의 효과로 인해 발생한다. 다음 사례를 고찰해보자. A, B, C 개인은 30달러를 분배하는 제안에 투표하되, 각자 제안한 수정안에 투표한다. 최초의 제안은 10달러씩 균등 분배하는 방안이다. 이에 A가 자신과 B에게 각각 19달러, 11달러를 주고 C에게는 한 푼도 안 주는 수정안을 내놓는 경우, A와 B가 찬성하여 다수결로

19) 다음을 보라. Gerald S. Strom(1990), *The Logic of Lawmaking*,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eter C. Ordeshook(1986), *Game Theory and Political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통과될 것이다. 그러면 B는 가령 자신과 C에게 각각 29달러, 1달러를 주자고 제안할 수 있고, 이는 B와 C가 찬성하여 다수결로 통과될 것이며 이러한 과정이 계속된다. 비슷한 방식으로 통과하지 못할 제안이 없음을 쉽게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과정을 영원히 계속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어떤 지점에서든 얻을 수 없는 결과도 없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어떻게 분배하든 자의적이거나 그렇게 결정한 절차의 인위적 산물(artifact)에 불과하게 된다.

요점은 개인적 선호를 집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 때가 많다는 점이다. 즉 “내가 원하는” 것의 합이 그렇게 쉽게 일관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지는 않는다. (54) 엄밀히 말하면 이것이 참이 되는 경우는 집합적 선호의 배열이 비이행적(intransitive)일 때뿐이다.

54

그러나 선택의 가짓수가 늘어날수록 비이행성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며, 그리하여 가령 예산 편성 시 비이행성이 (그리고 따라서 순환하는 다수의 가능성이) 거의 확실히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가 초래하는 한 가지 결과는 의제설정자들의 손에 막대한 권력을 안겨준다는 점이다. 간단한 비이행성의 사례에서는 그게 누구든 간에 선택지 검토 순서를 결정하는 이가 실질적으로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이 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준다. 즉 **심의적 자기이해(deliberative self-understanding)**에 대한 매우 광범위한 지지(commitments)가 없다면 입법민주주의 기구(apparatus of legislative democracy) 전체가 무의미해진다.²⁰ 입법자가 전반적으로 의사소통적 지향을 유지하고, 따라서 보다 나은 논거의 힘(the force of the better argument)에 따를 동기가 있다면, 원리상 입법 결과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입법자가 자신의 역할을 도구적 방식으로 개인 혹은 공동체의 특정 목표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자마자, [입법] 절차의 자의성이 커지고 체계의 효과는 감소하게 된다.

위 분석은 강력한 비판 도구를 제공한다. 특히 미국처럼 유효한 정당 제도와 제도적인 “견제와 균형” 개념이 없어서 입법자들이 도구적 지향을 취하기 쉬운 곳에서 그러하다. 위 분석은 입법의 “정체 현상”(gridlock)이라 할 수 있는 범위의 현상이 당파심(partisanship)의 결과가 아니라, 공적 정치 영역의 광범위한 도구화에서 내생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3. 시장경제와 관련된 문제

이윤율 감소 경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노동이 모든 가치의 원천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으면서 (하버마스가 『정당성의 위기』까지는 동의한)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적 자본주의 비판은 재구성을 요하게 된다. 특히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생산·교환으로 이행함에 따라 소득과 부가 정당화의 문제를 야기하는 방식으로 분배되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당연히 무엇이 문제인지 특정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은데, 주지하다시피 시장은 어떤 대안보다도 압도적인 총생산 수준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총이익과 분배상 이익 간의 수용 가능한 교환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 특정하려면 롤스의 차등의 원칙을 따르는 몇 가지 정식화를 요한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시장 메커니즘의 분배 효과를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일반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 (55) 한 예로 존 로머(John Roemer)는 마르크스주의의 근본 불만을 재구성하고자 표

20) 잭 나이트(Jack Knight)와 제임스 존슨(James Johnson)은 하버마스와 같은 심의민주주의의 지지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다룬 문헌에서 자기 입장을 뒷받침하는 많은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심의민주주의자들은 자유주의에 대한 빈약한 양해를 구하기 위해 피상적인 사례를 찾는 경우 외에는 그런 문헌을 거의 읽지 않는다.”, Jack Knight & James Johnson(1994), “Aggregation and Deliberation: On the Possibility of Democratic Legitimacy”, *Political Theory*, 22, pp. 277-296.

준 미시경제 모델을 활용했다. 약간의 근본 가정을 인정할 때 마르크스주의의 불만이란, 시장을 이용해 생산을 조직할 경우 착취(일부는 더 힘들게 일한다), 불평등(일부는 더 번다), 계급(일부는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한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²¹⁾

55

이러한 종류의 분석을 통해 경제 영역에서 도구적 행위에 의존할 때 나타나는 분배 결과를 정확하게 구체화할 수 있다. 여기에 보너스로, 부속화 대신 도구화에 초점을 맞춘 분석은 고전적 마르크스주의가 “상품화”(commodification)라는 표제로 합쳐놓은 것을 여러 가지 구별되는 문제로 분리할 수 있다.

이 유형의 합리적 선택이론은 미시경제 수준에서 기술되므로 경제정책을 평범하게(everyday)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큰 가치가 있을 수 있다. 고전경제학의 틀에는 무엇인가 기이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분석 이전의 마르크스주의(pre-analytic Marxism)는 반드시 그 분석을 거시경제 수준에 한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고전적 마르크스주의가 자본주의를 총체적으로 고발하는 것 외에 구체적인 정책 권고를 하는 식으로는 많은 것을 제공하지 못함을 의미했다. 반면에 합리적 선택 모델은 사유 상태인 단일한 산업 영역이나 시장 영역을 국유화할 때 나타나는 분배 효과를 구체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세분화된(fine-grained) 분석은 비판이론가들이 총이익과 분배상 이익의 형량(balancing)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점점 필수 불가결해진다.

위에서 논의한 모든 종류의 문제는 사회통합된 상호작용 영역의 도구화를 직접적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불쾌한 결과들을 포함한다는 점에 주목하라. 도구화에 종속된 생활세계 영역이 생활세계의 재생산에 필요한 자원을 생산하는 영역일 수도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문제들이 반드시 식민지화로 귀결된다는 법은 없다. 이 점은 합리적 선택 분석이 하버마스가 수행한 생활세계의 병리현상 분석을 보충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것이 아님을 뜻한다.

이는 어느 정도까지는 단지 강조점의 변화만을 포함한다. 하버마스의 식민지화 테제는 체계 통합의 범위 제한을 보장하도록 고안되었고, 초기 프랑크푸르트학파를 사로잡은 “총체적으로 물화된 사회”라는 비관적 전망에 답하는 것이 그 동기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오늘날 시점에서, 특히 북미의 맥락에서는 오히려 효과적인 사회 조직이 결여(lack)된 것이야말로 더 실재적인 위협인 듯하다. 달리 말하면 파시즘적 국가보다 흡수적 자연상태가 보다 근접한 디스토피아인 것 같다.

56

V

이러한 방식으로 하버마스의 분석을 정식화할 경우 몇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분석이 비판이론의 형태로 남아 있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나는 하버마스의 분석이 비판적 사회이론의 특징인 “설명 진단적”(explanatory-diagnostic) 측면과 “유토피아 예견적”(anticipatory-utopian) 측면의 통합을 이어감을 보여주려고 한다. 이 점은 중대하다. 그 까닭은 세일라 벤하비브(Seyla Benhabib)가 말하듯이 “설명 차원 없이 비판적 사회이론은 단순한 규범철학으로 해체된다. 반대로 만약 비판적 사회이론이 유토피아 예견적 차원의 비판을 배제

21) John Roemer(1982), *A General Theory of Exploitation and Clas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한다면, 사회세계의 가치중립적 인식을 획득하려는 다른 대부분의 사회이론과 구별할 수 없을 것이다.”²²⁾

여기서 하버마스의 분석을 정식화한 것에 따르면 위 두 가지 요소는 보존되는데, 합리적 선택이론이 오직 설명 진단적 역할만을 수행하는 한편 계속해서 의사소통적 합리성은 어떤 사회 조직 형태를 평가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규범적 표준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하버마스의 이론은 의사소통적 행위를 도구적 행위로, 혹은 그 반대로 환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두 가지를 구분되는 요소로 보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하버마스의 이론은 윌리엄 라이커(William Riker) 같은 합리적 선택 자유주의자나 로머 같은 분석 마르크스주의자처럼 모든 행위를 도구적 행위로 간주한 결과 규범적 표준을 제시하는 능력에 제약이 걸린 이론과 구별된다. 반대로 하버마스의 이론은 말하자면 찰스 테일러 식으로 도구적 행위를 단지 규범에 의해 규제되는 행위의 사례로만 취급하는 분석과도 구별된다.

모든 행위를 도구적 행위로 보는 첫 번째 사례부터 살펴보자. 가령 『포퓰리즘에 반대하는 자유주의』에서 라이커는 사회 선택이론의 제한적 결과를 도구적으로 합리적인 행위자 간의 의사결정이 내포한 자의성과 불안정성을 시사한다고 타당하게 해석한다.²³⁾ 그러나 라이커는 도구적 행위만을 유일한 합리적 행위 유형으로 본 까닭에 입법적 의사결정이 엄격하게 규범적 내용 없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결론 내린다. 그런 후 라이커는 자유주의 제도의 규범적 내용이 집단적 의사결정 실천이 아니라 개인적 권리의 강제에 있다는 반민주주의적인 결론을 이끌어낸다. 이 결론은 민주주의 사회의 도덕적 자기이해를 난처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어떻게 도구적으로 합리적인 행위자들이 서로의 개인적 권리를 확고하게 존중할 수 있는지를 만족스럽게 해명하지 않는 한 논점 회피이기도 하다.

유사하게 로머도 기이한 상황에 빠진다. (57) 로머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핵심인 실천론적 노동관(praxiological conception of labor)을 현대 미시경제학의 엄격한 도구적 버전으로 대체하였고, 이로써 노동 시장과 자본 시장 분석에 필요한 진정으로 중립적인 틀을 확립할 수 있었다.

57

그러나 로머는 모든 행위를 도구적 행위로 파악하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의 핵심적인 규범적 범주(착취)를 도입하는 작업에서 오직 제한된 자원만이 수중에 남는다. 로머는 연합으로서 사회 계급의 협력적 협상 모델(cooperative bargaining model)을 활용하여 착취를 정의하는 길을 택한다.²⁴⁾ 그렇지만 로머는 사회의 현 상태(social status quo)를 초기 협상 지점으로 설정해서는 올바른 결과를 얻지 못하며, 따라서 협상 문제의 토대로서 이상화된 자원의 재분배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 이는 다양한 층위에서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question-begging)이며, 주요 예시로 협력적 게임이론 자체가 도구적인 미시적 토대를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²⁵⁾

라이커와 로머 모두 합리적 선택이론을 활용하여 현실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패턴에서 발생

22) Seyla Benhabib(1986), *Critique, Norm and Utopi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 142. (역주: 정대성 역(2008), 『비판, 규범, 유토피아: 비판 이론의 토대 연구』, 서울: 울력, p. 194.)

23) William H. Riker(1982), *Liberalism Against Populism: a Confrontation between the Theory of Democracy and the Theory of Social Choice*, San Francisco: W. H. Freeman.

24) Roemer(1982), *A General Theory of Exploitation and Class*, pp. 194-238을 보라.

25) 협상이론을 활용하여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공정한 협력의 토대를 세우려는 데이비드 고티에(David Gauthier)의 시도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한다. 이러한 노선의 비판에 관해서는, Ken Binmore, “Bargaining and Morality”, eds. David Gauthier and Robert Sugden(1993), *Rationality, Justice and the Social Contract*, Hemel Hempstead, Herts: Harvester Wheatsheaf.

하는 문제를 진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이러한 패턴을 평가할 수 있는 규범적 표준을 구성하려다 난점에 부딪힌다. 하버마스의 틀에서는 의사소통적 합리성 개념이 규범적 표준을 공급한다. 이는 하버마스가 라이커의 도구적 포퓰리즘 비판에 동의하면서도 반민주주의적 결론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뜻한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입법적 의사결정의 무가치함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정치가 침식되어 발생한 결과를 규명하는 도구를 제공한다. 같은 방식으로 집합행동의 문제를 분석하는 의도는 국가를 뒷받침하는 규범적 토대를 공급하는 데 있지 않고, 국가의 개입으로 교정 가능한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적 패턴을 식별하는 데 있다.

그러나 반대 방향으로 너무 멀리 가버려서 이론의 규범적 요소가 설명 진단적 차원을 가리면 안 된다는 점도 똑같이 중요하다. 예컨대 테일러는 모든 행위가 도구적이라는 주장을 부인하는 한편, 모든 행위를 사실상 일련의 도덕적 지지(moral commitments)에 따라 조직된 것으로 취급하는 합리적 행위 모델을 제시한다. 테일러의 관점에서는 강하게 평가된(strongly evaluated) 다양한 선들이 모든 사회적 실천의 밑바탕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른바 도구적 행위는 실은 “효율성”(efficacy)이라는 선을 지향하는 행위일 뿐이다.²⁶⁾ 그렇다면 효율성이라는 선은 근대적 정체성에 중요한 네 가지 선들, 가령 “평등”, “창조성” 등 가운데 하나로서 경쟁한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도구화는 그저 “효율성”을 최상위에 두도록 우리의 도덕적 지지 순서를 조정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견해의 문제는 근대사회의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파악하도록 조장한다는 점이다. (58) 예를 들어 테일러는 시장 메커니즘이 초래한 왜곡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우리가 효율성의 선을 과도하게 지지한 데서 발생한 직접적 결과로 본다.²⁷⁾

58

이는 우리가 단지 도덕적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의식적 통제를 실천하기만 하면 이러한 결과를 방지할 수 있음을 함축한다. 합리적 선택 분석은 그러한 문제가 개인의 가치 서열화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가치 실현 행위가 상호작용할 때 생긴다는 점을 암시한다. 행위자 자신은 흔히 이러한 상호작용의 본질을 알지 못하며, 따라서 행위자들의 우선순위 조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엇보다도 불황, 계급 등 시장이 가져오는 불쾌한 부작용 다수는 우리가 채택하는 가치체계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고 볼 좋은 이유가 있다.²⁸⁾

요컨대 **그릇된 규범**을 제도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왜곡된 효과와 **아무것도** 제도화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하는 왜곡된 효과를 분명히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사회적 행위를 규범에 의해 규제되는 것으로 본 테일러는 두 효과 사이에 쓸모없는 혼동을 낳고 만다. 하버마스의 합리적 행위 유형 분류를 통해 우리는 두 효과를 구별할 수 있다. 이 틀 내에서 우리는 합리적 선택 모델을 활용하여 후자의 유형에 해당하는 사회적 문제가 언제 발생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VI

26) Charles Taylor(1993), “Alternative Futures: Legitimacy, Identity, and Alienation in Late-Twentieth Century Canada”, *Reconciling the Solitudes*, Montreal/Kingston: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7) Charles Taylor(1985), “Legitimation Crisis?”, *Philosophy and the Human Sciences: Philosophical Papers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8) 논의와 관련하여 Alec Nove(1991), *The Economics of a Feasible Socialism Revisited*, London: HarperCollins을 보라.

요약하면 여기서 개진한 논증은 하버마스가 행위 수준의 도구적 합리성 개념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질서 수준의 체계통합 및 “기능주의적 이성”을 사용하는 분석을 발전시켰음을 시사한다. 비판적 사회이론의 기초를 질서 수준 개념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오도된 것인데, 우리가 사회질서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미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행위 수준 개념으로의 전환이 의미하는 바는 구체적 진단을 동반한 비판이론을 발전시키기 위해 합리적 선택이론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그렇다고 생활세계의 병리현상 분석을 대체하지는 않는다. 도구화가 조절제도체계의 문화적·사회적·인격적 버팀목을 약화하는 경우에는 하버마스의 기본 분석을 계속 따라야 할 것이다. 합리적 선택이론의 임무는 하버마스의 처방에서는 애매했던 비최적상태와 사회 역기능(suboptimality and social dysfunction)의 전 영역을 밝혀주는 것이다. 따라서 행위 수준 분석은 질서 수준 분석을 무너뜨리지 않으며, 단지 질서 달성 이전에 발생하는 장애들을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질서 수준 분석을 확장할 뿐이다.

(59) 하버마스 비판이론의 진단적 요소를 이와 같이 재정식화하면 많은 이점이 있다. 아래에서 이를 요약하는 것으로 끝맺고자 한다.

59

- 우리는 합리적 선택의 틀을 활용하여 하버마스의 분석에 깔린 부적당한 유형의 기능주의를 걷어내고, 나아가 (루만의 체계 기능주의와 달리) 엄밀성과 경험적 검증 가능성을 갖춘 몇 가지 매우 강력한 이론적 선택 모델에 접근할 수 있다.

- 합리적 선택 분석은 체계 분석보다 일반성이 훨씬 강한데, 정확하게 합리적 선택 분석은 도구적 지향을 취하는 행위자들의 행위가 반드시 통합되리라고 가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버마스는 생활세계의 병리현상 분석은 부속화에, 부속화는 도구화에 직접 연결한다. 그러나 부속화가 도구화에 대한 하나의 가능한 대응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두 번째 연결의 직접성을 부정한다면, 하버마스가 암묵적으로 매우 협소한 범위의 현상으로 분석을 한정했음은 분명하다. 합리적 선택 접근은 도구화를 직접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우회로를 제거한다.

- 우리는 합리적 선택이론의 도움으로 이런저런 이론 체계에 광범위한 개입(commitment)을 요하지 않는 도구를 활용하여 미시 규모의 구체적 상호작용 패턴 분석을 개발할 수 있다. 이 같은 상대적 이론중립성 덕분에 비판이론, 분석 마르크스주의, 주류경제학 사이에 유익한 대화의 가능성이 열린다. 또한 비판이론이 문화적 영웅(a cultural hero)이 아닌 사회의 맥락에서는 이러한 연계 작업이 현실적인 공공정책 토론에 어떤 영향력이라도 행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다.